

목포시-신안군 행정 통합 무산 위기

9월초 협의의 후 석 달 간 논의 없어 "반대 신안주민 설득이 관건"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 통합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7월16일 행정 통합에 공식 합의한 이후 양 기관은 40여일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지난 9월2일 협의를 끝으로 통합을 향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다.

김 시장과 박 군수가 실무위원회 구성 등 통합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약속하면서 목포·신안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4개월이 넘도록 양 기관이 이렇다할 추진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통합은 이미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군 통합에 먼저 시동을 건 이는 박 군수다. 1년 전인 2019년 12월7일 민간단체 초청 신안군수 특별강연회에서 박 군수는 목포·신안 통합을 처음 언급했다.

이후 올해 7월10일 토론회에서 김 시장과 박 군수는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군수는 "하나의 생활권인데 행정기관이 이원화돼 불편한 점이 많다"며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김 시장은 "두 지역이 합치

면 10년간 30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다"고 화답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지역방송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목포·신안 통합에 공식 합의했다.

통합 시한에 대해서도 김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끝나고 세부 준비 절차까지 빠르게 진행하면 2024년 총선과 함께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내다봤고, 박 군수는 "여러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가 적합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장은 9월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준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 지역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려 사·군 통합 합의사항을 도출, 정부에 통합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같이 사군 통합 로드맵까지 제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통합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양 기관은 지난 9월2일 협의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향후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이달 말까지 민간 주도 통합 추진위원회(목포시 측)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우선 추진단 30명을 추천한 상태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조직을 결성하고 정관 승인, 자치단체 보조금지원단체 구성 요건을 올



목포와 신안을 잇는 압해대교.

해 내에 갖춘다는 방침이다.

신안군은 기획실장 주도의 공무원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난 8월 통합 성공 사례로 꼽는 청주시·청원군을 방문, 상생발전방안을 벤치마킹해 지역 실정에 맞는 기본안을 군수에게 전달한 상태다. 최종안이 마련되면 목포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러나 상생발전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신안군 일부 주민들이 통합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

문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신안·목포 통합 논의는 지난 1994년 이후 7번째다. 양 단체장이 대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성사 가능성은 이전보다 훨씬 높고 기대감도 크다"면서 "하지만 통합의 성패는 신안군민의 통합 의지에 달려있다. 신안·목포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전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청정 전남 만들기에 앞장"



전남도새마을회는 지난 4일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2020 전남도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성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귀남 전남도새마을회장, 사·군 새마을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새마을회는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생명 살림 국민운동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

전남도새마을회는 올해 생명살림운동으로 깨끗한 전남만들기, 케냐프스기, 남도 청정바다지킴이 운동, 아름다운 골목길 가꾸기, 태풍피해지역 수해 복구, 생태하천복원운동 등을 전개했다.

또 평화나눔운동으로 고부사랑 나누기, 아·미용 봉사, 농촌일손돕기, 이주여성 진정집 생필품 보내주기, 사랑의 집 고쳐주기, 마스크 제작 및 방역 활동 등을 펼쳤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는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공로로 새마을훈장을 받은 조영애·김영찬 씨 등 유공자 169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잇단 태풍에도 어선피해 '0' 신안군 '인양장비임차사업' 빛났다

국내 첫 포크레인·인양기 대여 자연재해 대응 어업인 호응

신안군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어선 인양장비 지원사업'이 효과를 보고 있다.

7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소형어선을 육지로 인양·결박할 수 있도록 '재해 대비 어선 인양장비 임차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어촌 현실에 맞는 재해대비 인양장비와 어업용 포크레인, 고정식 인양기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신안군은 현재 고정식 인양기(렌탈 8대 포함) 169대와 포크레인 3대를 설치, 운영 중이다.

포크레인 임차사업을 통해 2000여척의 소형어선을 육지 인양과 안전지대로 이동 결박하는 등 피해 예방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간 제8호 태풍 바비, 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등 연속된 태풍이 지역을 관통할 때에도 이들 장비를 활용해 '어선피해 제로화'에 성공했다.

포크레인은 평소 수산물 인양 작업 및 해안가에 밀려드는 쓰레기 제거 작업 등 환경정화활동에 사용되고, 태풍 등 재해시에는 응급복구에도 사용할 수 있어 1석3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포크레인 및 고정식 인양기와 재해대비 어선 인양장비 임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모든 어촌계와 어업인에게 안전한 어업 활동과 재산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이 추진하는 재해 대비 어선 인양장비 임차사업이 어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혜 논란' 목포 소각시설 14일 온라인 주민설명회

'특정 업체를 염두에 뒀다'는 논란에 휩싸인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 사업(광주일보 8월 10일 12면)에 대한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열린다.

목포시는 오는 14일 오후 3시 목포MBC 공개홀에서 소각시설 관련 랜선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목포시는 시민 알권리 충족과 소통하는 행정을 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한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된다.

폐기물, 대기오염, 사업방식 등 분야별 전문가 3명의 설명과 접수된 시민의 질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질문은 사전접수·실시간 채팅창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질문 신청은 8-10일 목포시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jhlim300@korea.kr)로 하면 된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약 840억 원(국비 357억 원·민자 483억 원)을 투입해 1일 처리용량 220t 규모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화

110억 들여 연구단지 건립...스타트업 기업·연구소 40곳 입주

완도군은 해양바이오연구소와 바이오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건립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연구단지에는 기업연구소 10곳, 스타트업 30곳이 입주한다.

완도는 맥반석으로 이뤄진 최적의 해조류 서식

환경을 지니고 있다. 국내 해조류 총 생산량 180만 t 중 70만 t 이상을 생산하는 해조류의 본고장으로, 이를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최적지로 평가 받고 있다.

해조류는 육상 자원과 달리 후쿠이단·폴리페놀 등 기능성 다당류와 생리활성물질이 풍부해 바이오산업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다.

완도군은 해조류바이오 활성소재 생산시설 기반 조성 사업에 250억원, 해조류 유효성 평가센터 건

립에 15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해양바이오산업 기반 시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로스코프 해양생물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유레카(EUREKA)'에 참여하고 있다.

또 해조류 기능성 물질 연구를 통해 산업화 소재 개발과 기술 이전 등으로 해양바이오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